

미국 시카고 과학산업관

북미 최대 규모의 과학관

매년 관람객 2백여만명

미국 동부의 교통 요충지 시카고는 미국 3대 도시 중의 하나이며, NBA 농구팀 ‘시카고 불스’로도 우리에게 친숙한 곳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1백10층, 높이 4백33m) ‘시어즈 타워(Sears Tower)’와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유명한 ‘존행콕센터(1백층, 높이 3백44m)’ 등의 고층 건물들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다운타운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유서깊은 하이드공원(Hyde Park)에는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시카고 과학산업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이외에도 10여개의 특색 있는 박물관들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미시간 호반에 위치한 그랜트공원에는 6천6백여종의 살아있는 해양생물로 꾸며진 ‘셰드수족관’과 전 세계의 동식물 표본이 전시되어 있는 ‘필드 자연사박물관(Field

Natural History Museum)’ 등이 있다.

매년 2백만명의 관람객 몰려

이들 중에서도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관이라 할 수 있는 ‘시카고 과학산업관’은 1933년에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약 1억6천만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약 2백만명의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정규직원과 함께 3백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카고 과학산업관은 약 3만2천5백m²의 전시 공간에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듣고, 관찰하고, 조

작하는 8백여점의 작동 체험형 전시물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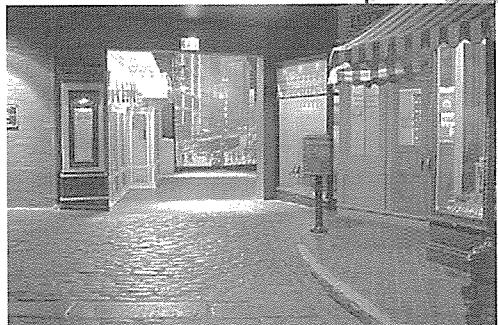
주차장에서 연결된 지하 1층의 그레이트홀(Great Hall)을 거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의 전시관으로 올라가면 과학기술에 대한 원리와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아이디어 공장(Idea Factory)’과 ‘사이언스 극장’ 이외에도 ‘에너지판’, 1930년대의 탄광 엘리베이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잠수함(U-505 Submarine), 과거 시카고 시내의 거리 모습을 재현한 ‘어제의 메인 스트리트(Yesterday's Main Street)’, 동화 속의 주인공 헨젤과 그레텔을 비롯하여 책, 의자, 시계, 궁전 등 각양각색의 축소 모형들로 꾸며진 ‘요정의 성(Collen Moore's Fairy Castle)’ 미니어처를 관람할 수 있다.

이 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전시관 중의 하나는 최초의 유인 달 탐사선(Apollo 8)과 당시 승무원들의 달 착륙 훈련실 그리고 1962년의 ‘수성 탐사선 캡슐(Aurora 7)’이 전시되어 있는 ‘우주센터(Henry Crown Space Center)’와 매일 10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3백30석 규모의 옴니맥스극장이라 할 수 있다.

전시관 2층의 중앙에는 대리석으로



▲ 각종 자동차의 발달사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코너



◀ 과거 시카고 시내의 거리를 재현한 ‘어제의 메인 스트리트’

다운타운에서 10분 거리의 하이드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시카고 과학산업관’은 1933년에 개관하여 매년 2백만명씩
 현재까지 1억6천만명의 관람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아이디어공장, 사이언스극장,
 에너지관, 요정의 성 등 다양한 전시관을 갖추고 있는
 북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과학관이다.

건축된 6백석 규모의 돔형 리셉션홀(Rotunda)이 있고, 그 주위에 교통 및 통신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과 8백50석 규모의 강당(Auditorium) 그리고 2백석 규모의 소극장이 있다.

특히, 이 곳에서는 병아리의 탄생과정을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병아리 부화장(Chick Hatchery)과 1937년에 제작된 장경 47인치의 타원형 ‘소리 전달관(Whispering Gallery)’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며, 비행 시뮬레이터(Flight Simulators)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세계 코너는 청소년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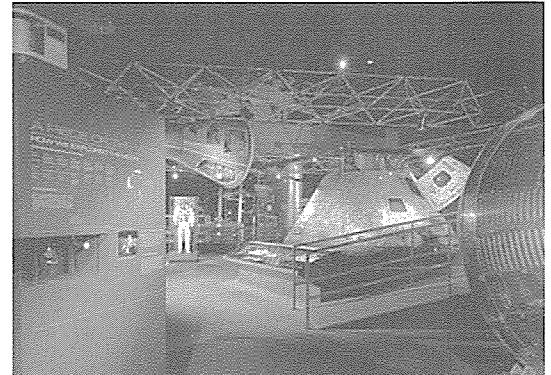
생명의 탄생 설명 ‘생명과학코너’ 입장

그리고 각종 운송수단을 전시한 교통코너에서는 1942년에 약 1/50 크기로 축소 제작한(1988년에 보완) 약 4백m 길이의 모형 철도(Santa Fe Railroad), ‘эм파이어 999 고속 증기 기관차’, 2차 대전 당시의 영국 전투기(Supermarine Spitfire) 등을 관람 할 수 있으며, 최근의 자동차 안전관련 기술과 함께 자동차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오토갤러리에서는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제작한 ‘Bernardi

1896 Tricar’와 포드사의 1914년형 자동차를 포함하여 독특한 모양의 초창기 자동차들이 관람객의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한다.

3층 전시관은 세포, 생명의 탄생 및 인체의 구성 을 설명하는 ‘생명과학 코너’,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레고교실’ 그리고 ‘기초과학 코너’로 구분되어 있다. 이 곳에서 관람객들은 시카고 과학산업관에서만 볼 수 있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실제 ‘보잉 727기’에 직접 탑승하여 비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오렌지 색의 블랙박스 속에 들어있는 검은 색의 비행 기록 녹음테이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수 있게 된다.

한편,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서 신생아의 출산까지 각 단계별 태아의 액침 표본, 성인 남녀의 사체를 냉동시켜 약 1/2인치 간격으로 자른 인체 단면, 관람객이 걸어서 통과할 수 있는 인간의 심장모형(높이 5m, 길이 6m) 그리고 최근에 제작 전시한 에이즈(AIDS)관련 전시물들은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인체의 구성에 대한



최초의 유인 우주왕복선(Apollo 8)과 우주복 등을 전시한 우주센터 코너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성 의식의 고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시카고 과학산업관은 다른 과학관에서 볼 수 없는 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의 전시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이 항상 편리하고쾌적한 환경에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히 돋보인다. 또한, 30~2백석 규모의 크고 작은 세미나실, 회의실, 소극장 등과 함께 교사 및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현장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강의실과 실험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도 다른 과학관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⑦

李 貞 九

〈국립중앙과학관 자연사연구실 연구사〉